

##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과 그 연원

백 용 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도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재능있고 지혜로운 문명한 민족입니다.》(《김일성전집》 제1권 554페이지)

후기신라시기 우리 선조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으로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발전수준이 높은 우리 민족의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세계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후기신라시기의 우수한 문화유산들가운데는 우리 민족의 높은 창조적지혜와 재능, 고유의 생활풍습을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 무덤유적도 있다.

후기신라시기에는 세나라시기에 무덤무지의 크기로, 금은보화를 꺼묻던것으로 지배계급의 권세를 상징하던것과는 달리 무덤외부를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무덤건축에서는 그 구성과 짜임새에서 앞선 시기와는 다른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즉 무덤무지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아지고 무덤안의 치레와 꺼묻거리는 단조롭고 소박해진 반면에 무덤외부에는 망주석, 비석, 돌사람, 돌짐승 등 여러가지 돌조각물들을 세워 위엄있게 꾸리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고 그 연원을 새롭게 밝히려고 한다.

후기신라무덤에는 돌칸흙무덤과 돌곽흙무덤 그리고 화장무덤인 뼈단지무덤과 수중무덤 등이 있는데 무덤외부시설들은 주로 돌칸흙무덤들에서 알려졌다.

후기신라무덤들에서 알려진 무덤외부시설에는 우선 여러가지 형식의 무덤무지보호시설이 있다.

무덤무지보호시설은 크게 세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첫째 형식은 무덤무지의 밑부분둘레에 돌들로 보호석을 쌓은것이다. 이런 형식의 무덤으로는 태종무렬왕무덤과 서악리 장산토우무덤 등을 들수 있다.

태종무렬왕무덤은 경상북도 경주시 선도산의 동쪽기슭에 위치하고있다. 여기에는 총 5기의 큰 규모를 가진 왕릉급의 무덤들이 1렬로 나란히 배치되어있다. 태종무렬왕무덤은 이 무덤떼가운데서 동쪽의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하고있다.

\* 태종무렬왕무덤은 전기신라 말기인 661년에 만들어졌으나 시기적으로 후기신라 초기와 이어지며 그 무덤형식도 후기신라 초기무덤과 같으므로 여기에서 함께 논한다.

무덤무지의 크기는 직경 약 37m, 높이 10.9m이며 그 주변에는 깎아지른 듯이 쌓은 보호석이 곳곳에 남아있다. 태종무렬왕무덤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있는 무덤 즉 무덤떼가 있는 룡선의 제일 높은 곳에 있는 1호무덤에서도 보호석이 알려졌다. 현재 무덤무지의 크기는 직경이 39m이고 높이는 8m이다.

무덤무지의 밑둘레에는 돌로 1.7m 높이로 쌓아올린 보호석이 있다.

서악리 장산로우무덤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선도산에서 태종무렬왕무덤의 남쪽으로 뻗어내린 구릉지대에 자리잡고있다.

이 무덤은 안길과 주검칸으로 이루어진 외칸의 돌칸흙무덤으로서 무덤의 방향은 남향이다. 무덤무지의 크기는 직경 약 19m, 높이 약 7m인데 그 둘레에는 태종무렬왕무덤과 마찬가지로 깎돌로 쌓은 보호석이 둘러져있다.

서악리돌칸흙무덤에도 무덤무지밑부분의 남쪽에 큼직한 돌들로 높이 70cm 되게 쌓아올린 보호석이 있다.\*

\*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1998년 460~468페이지

둘째 형식은 무덤무지의 밑부분둘레에 버팀돌을 둘러놓은것이다. 이 형식에 속하는 무덤으로는 신문왕무덤, 민애왕무덤, 헌강왕무덤, 정강왕무덤 등을 들수 있다.

신문왕무덤은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량산남쪽평지에 위치하고있는 7세기 말엽의 돌칸흙무덤이다.

이 무덤은 무덤외부시설의 변천과정에서 이른 시기에 속하는 무덤이다.

무덤은 네모난 규격돌로 다섯 돌기를 쌓은 다음 판돌 하나를 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버팀돌들을 놓았다. 버팀돌의 수는 44개이다. 남쪽에 위치하고있는 한 버팀돌에 문(門)자가 새겨져있다.

무덤앞 약 2.8m 떨어진 곳에 돌상이 있다.

민애왕무덤은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의 서쪽 서천너머의 구릉지대에 위치하고있다.

무덤무지의 크기는 직경이 12.5m이고 둘레가 38m이다. 무덤은 남북방향으로 경사진 지대를 깎아내고 만들었다. 무덤의 남쪽과 동쪽면에는 3단으로 쌓아올린 보호석이 있다. 보호석은 먼저 한단으로 기초석을 만들고 그우에 3단으로 판돌을 올려쌓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버팀돌들을 놓았다.

헌강왕무덤과 정강왕무덤은 남산의 동쪽산기슭에 위치하고있다.

헌강왕무덤은 원형의 무덤무지밑둘레에 장방형의 돌들로 3단의 보호석을 쌓았다. 무덤무지의 서쪽면에서 남쪽면으로 갈구리모양의 길고 큰 돌들을 배열하여놓았다.

정강왕무덤도 헌강왕무덤과 구조가 같다. 무덤무지의 서쪽과 남쪽에는 깎돌로 2단의 보호석을 쌓고 일정한 간격으로 버팀돌들을 놓았다.

셋째 형식은 무덤무지의 밑부분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매개 방위에 해당하는 12지신상을 부각한 면돌과 돌란간시설이 갖추어져있는것이다. 이 형식의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경덕왕무덤, 구정동방형무덤, 헌덕왕무덤이 있다.

8세기 중엽에 축조된 경덕왕무덤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에 위치하고있다.

이 무덤의 무덤무지밑둘레에는 화강석으로 가공한 장방형의 큰 판돌을 세워놓고 그우에 돌로 띠를 돌렸다. 그 주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돌란간이 있는데 여기에 12지신상이 있다.

구정동방형무덤은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의 울산으로 가는 도로와 불국사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교차점부근에 위치하고있다.

외칸짜리 돌칸흙무덤으로서 무덤무지의 크기는 길이 9m, 높이 3m이다.

무덤무지의 평면생김새는 방형이며 그 밑돌레에 보호석을 쌓았는데 거기에 12지신상이 도드라지게 새겨져있다.

헌덕왕무덤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에 위치하고있는데 평면생김새가 원형이며 그 밑돌레에 보호석을 쌓고 돌란간을 설치하였다.

무덤무지의 밑부분돌레에 12지신상을 부각한 면돌을 놓은 무덤은 이밖에도 성덕왕무덤, 흥덕왕무덤, 패릉 등이 있다.

후기신라무덤들에서 알려진 무덤외부시설에는 다음으로 여러가지 형식의 무덤무지주변시설이 있다.

무덤무지주변시설로서는 상돌, 망주석, 돌사자, 돌사람, 거북받침대를 가진 비석 등이 있다.

무덤무지주변시설들의 배치상태를 보면 비석은 무덤무지의 우측바깥쪽 혹은 앞쪽에 있고 망주석, 돌사람, 돌사자는 무덤무지나 무덤길의 량쪽에 서로 마주 세워져있다.

무덤무지주변시설들이 알려진 대표적무덤들로는 태종무렬왕무덤, 성덕왕무덤, 흥덕왕무덤, 패릉 등을 들수 있다.

태종무렬왕무덤에서는 앞에서 본것처럼 무덤무지보호석과 함께 주변시설들인 거북받침대와 비석도 알려졌다.

거북받침대는 무덤무지의 우측에 있는데 높이가 103cm이다. 받침돌에는 갑골문자, 보상화문자, 비운문자와련꽃별자리가 새겨져있다.

비석은 무덤의 앞쪽에 있다. 비석은 서남방향을 향하고있는데 높이는 106cm이다. 비석에는 좌우에 각각 3마리씩 모두 6마리의 룡이 조각되어있다. 룡조각의 예술적표현은 고구려의 집안다섯무덤의 4호무덤과 5호무덤의 벽화에 그려져있는 룡을 방불케 한다. 비석의 중앙에는 《태종무렬대왕지묘》라는 글이 전서체로 부각되어있다.

성덕왕무덤은 8세기 중엽의 돌칸흙무덤으로서 경상북도 경주시 조양동에 위치하고있다.

무덤무지밑돌레에는 네모나게 가공한 큰 화강석판돌을 빙둘러 세워놓고 그우에 판돌을 길게 가공하여 눕혀놓았다. 무덤돌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돌란간을 둘렀으며 이 돌란간과 버팀돌사이에 빙둘러가며 12지신상을 새긴 돌조각을 세웠다. 그리고 무덤무지의 주변에 비석받침대와 돌사자상, 돌사람상도 있다.

돌사자상은 무덤무지를 중심으로 하여 네 모서리에 각각 한쌍씩 놓여있고 돌사람상은 무덤무지앞가까이에 두명씩 좌우에 마주 세워져있다.

무덤무지의 우측앞쪽으로 50m 되는 곳에 거북기를 형상한 비석받침대가 있다.

패릉은 8세기 중엽의 무덤으로서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하고있다.

무덤무지의 돌레에는 병풍돌을 둘러세웠는데 그 결면에는 12지신상이 도드라지게 새겨져있다. 병풍돌앞으로는 무덤돌레를 따라 돌란간을 둘렀다. 무덤앞에는 상돌을 놓았던 흔적이 있고 그 앞쪽에는 무덤길좌우에 돌사자 두쌍과 문인과 무인으로 형상된 돌사람 두쌍, 그리고 8각의 망주석을 차례로 각각 한쌍씩 서로 마주서게 세워놓았다.

흥덕왕무덤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북쪽 5~6km 되는 언덕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무덤무지의 돌레에는 패릉과 같이 결면에 12지신상을 도드라지게 새긴 병풍돌이 둘러져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덤돌레를 따라 돌란간이 있다.

돌사자상은 성덕왕무덤과 같이 무덤무지의 네 모서리에 배치되었다.

무덤무지의 앞쪽에는 상돌이 있고 무인과 문인을 형상한 돌사람상이 무덤길의 좌우에 한쌍씩 배치되어있다. 돌사람상앞쪽에 8각의 망주석이 서로 마주서있다.

무덤무지의 동쪽앞쪽에 거부기를 형상한 비석받침대가 있으며 그 부근에서 《흥덕》(《興德》)이라는 글을 새긴 비석조각이 나왔다.

흥덕왕무덤은 무덤앞 돌시설물들과 그 배치에서 패릉과 함께 완비된 면모를 보여준다.

망주석은 8각 기둥이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간단한 형식이다. 그 크기는 무덤에 따라서 다르다. 패릉의 망주석은 높이가 1.82m이고 흥덕왕무덤의것은 높이가 2.44m이다.

돌사람상은 네모난 기단돌우에 놓여있다. 성덕왕무덤의것은 높이가 2.55m이고 흥덕왕무덤의 문인상은 2.75m, 무인상은 2.68m이다.

돌사자상은 모두 네모난 대돌우에 뿔어앉은 자세로 놓여있다. 성덕왕무덤의것은 높이가 1.08m, 패릉의것은 1.4m, 흥덕왕무덤의것은 1.59m이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후기신라시기무덤들에서는 앞선 시기와는 달리 훨씬 다양하고 짜인 무덤외부시설들이 많이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무덤에는 해당 시기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치와 계급관계, 그들의 생활풍습, 감정, 정서 등이 짙게 반영되어있어 전통성이 강한것이 특징이다. 그렇기때문에 후기신라무덤들에는 선행시기 무덤에서 볼수 있는 공통적인 측면들과 새로운 발전적인 측면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이것은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의 연원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단서로 된다.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의 연원은 후기신라와 함께 존재한 발해와 선행한 시기의 무덤외부시설들과의 대비속에서만 원만히 밝힐수 있다.

먼저 후기신라와 함께 존재한 나라인 발해의 무덤외부시설과의 호상관계를 보기로 한다.

발해와 후기신라는 같은 시기에 존재한 나라들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것만큼 무덤구조 특히 무덤외부시설들사이에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공통성을 찾을수 있다.

그러한 공통성은 무덤들에 여러가지 무덤무지보호시설들이 있으며 무덤무지주위에 방형 또는 장방형의 무덤구역이 설정되어있는것이다.

발해의 동청3호돌각담무덤과 8호돌각담무덤을 비롯한 여러 무덤들에는 무덤무지밀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돌시설이 있으며 삼령둔1호돌칸흙무덤, 장항1호무덤, 하남둔무덤 등에는 담장을 축조하여 구획하여놓은 무덤구역이 있다.

후기신라의 무덤들인 패릉, 흥덕왕릉, 신문왕릉 등 여러 왕릉들에도 무덤구역이 설정되어있으며 무덤무지의 밀부분에는 보호시설로서 화강석판돌 또는 각이한 크기의 돌로 쌓은 병풍돌이 있다.

또한 무덤구역안에는 돌사자, 돌사람, 망주석 등 여러가지 돌조각물들이 배치되어있다.

이처럼 발해와 후기신라의 무덤들은 무덤무지보호시설과 무덤구역 등 무덤외부구조의 여러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이미 학계에서 밝힌것처럼 발해무덤과 후기신라무덤은 같은 거레가 창조한 우리 민족의 무덤형식으로서 발해무덤을 주류로 하여 계승관계와 공통성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고구려의 우수한 무덤건축술을 계승발전시킨것이다. 그러한 력사적사실들이 발해, 후기신

라무덤유적들에 뚜렷이 반영되어있다.

그런것만큼 발해무덤과 후기신라무덤의 무덤외부시설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성도 대체로 앞선 시기의 무덤 즉 고구려무덤외부시설에서 이어진것이라고 볼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의 연원은 발해무덤외부시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무덤외부시설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의 연원을 고구려무덤에서 찾게 되는 근거는 첫째로, 무덤외부시설들이 알려진 돌칸흙무덤형식이 고구려에서 제일먼저 만들어진 무덤형식이기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것처럼 돌칸흙무덤은 고구려의 전형적인 무덤형식으로서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널리 리용되었으며 백제, 신라 등 삼국시기의 무덤들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후 발해, 후기신라를 거쳐 고려무덤으로 이어진 우리 나라 중세시기의 완성된 무덤형식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돌칸흙무덤형식의 전통은 고구려무덤에서 시작된것이다.

후기신라에서는 무덤건축에서 고구려의 우수한 돌칸흙무덤형식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변화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무덤외부시설들을 갖추어나갔던것이다.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의 연원을 고구려무덤에서 찾게 되는 근거는 둘째로,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들과 고구려무덤외부시설들이 강한 공통성을 나타내고있기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통성은 우선 무덤무지보호시설을 갖추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태종무렬왕무덤과 서악리 장산토우무덤, 신문왕무덤, 민애왕무덤, 현강왕무덤, 정강왕무덤 등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무덤무지밑둘레에 일정한 높이로 보호석을 쌓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버팀돌들을 둘러놓는 형식은 무덤무지의 류실을 막고 그것을 견고하게 잘 보존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것으로서 전형적인 고구려양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무덤을 축조하면서 무덤무지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류형의 보호시설들을 갖추어놓았다.

특히 운평리4지구 3호무덤과 풍청리33호무덤을 비롯한 기단돌각담무덤들에서는 기단밖에 큰 돌들을 박아넣고 3~5층으로 돌을 쌓아 기단을 만들었으며 장군무덤, 태왕무덤, 칠성산871호무덤과 같은 큰 무덤들에서는 여러 단으로 계단을 쌓고 그 밑둘레에 버팀돌들을 둘러놓아 무덤무지의 류실을 막았다.

그리고 경신리1호무덤과 토포리큰무덤을 비롯한 돌칸흙무덤들에서도 무덤무지밑둘레에 네모지게 돌기단을 쌓아 무덤무지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였다.

이처럼 고구려에서는 무덤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더 잘 보존하기 위하여 무덤무지밑둘레에 여러 단으로 보호석을 쌓거나 무덤무지전체를 계단모양으로 축조하고 그 둘레에 버팀돌과 같은 여러 류형의 무덤무지보호시설을 갖추어놓았다.

후기신라무덤들에서 이와 같은 고구려양식의 무덤무지보호시설이 알려진 사실은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과 고구려무덤외부시설과의 계승관계를 잘 말해주고있다.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과 고구려무덤외부시설의 공통성은 다음으로 무덤구역을 형성하고 다양한 류형의 무덤무지주변시설을 갖추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태종무렬왕무덤, 성덕왕무덤, 흥덕왕무덤, 패릉 등 후기신라무덤들에서는 무덤무지앞남쪽구릉지대에 상돌, 망주석, 돌사자, 돌사람, 비석 등 다양한 류형의 무덤무지주변시설

들을 배치할수 있는 방형 또는 장방형의 무덤구역이 설정되어있는것이다.

고구려무덤들인 동명왕릉이나 태왕무덤, 태성리3호벽화무덤, 안악3호무덤 등에서도 무덤무지앞의 남쪽산경사면을 그대로 리용하여 무덤구역을 형성하고 제단, 건축지, 절간과 비석 등 무덤무지주변시설들을 배치하였다.

물론 무덤무지주변시설들의 구체적인 류형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무덤무지앞 남쪽산경사면의 넓은 면적에 무덤구역을 형성하고 다양한 외부시설물들을 배치하였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후기신라무덤과 고구려무덤의 무덤구역구성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공통성은 후기신라무덤이 고구려무덤의 전통을 이어받았기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후기신라무덤과 고구려무덤에서 나타나고있는 무덤무지주변시설의 류형에서의 차이점은 이 시기에 이르러 무덤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변화된데로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볼수 있다.

후기신라에 앞선 시기에는 사람들이 죽어 땅에 묻히면 그속에서도 살아있을 때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는 관념밑에 무덤외부보다도 무덤내부를 지상의 건물과 같이 웅장하고 호화롭게 꾸리는데 많은 관심을 돌리었다.

그렇지만 후기신라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관념은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배계급들은 저들의 《권위》와 《공로》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후세에 《시위》할 목적밑에 무덤건축에 보다 많은 힘을 돌리었다. 단순히 봉토를 높이 쌓는것으로만 욕망을 충족시킬수 없어 보다 화려하고 아담한 무덤양식을 탐구하는 과정에 점차 무덤의 내부적인 치장보다 무덤외부를 보다 웅장하고 숭엄하게 꾸리는데 더 큰 목적을 부여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무덤구역은 형성하였지만 그안에 배치된 무덤무지주변시설물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것이다.

이렇게 무덤앞에 넓은 무덤구역을 형성하고 무덤무지보호시설과 무덤무지주변시설들을 갖춘 형식은 후기신라와 함께 존재한 발해에서도 찾아볼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 무덤외부시설들이 고구려무덤외부시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상에서 본것처럼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돌칸흙무덤형식을 이어받았고 그외부구조도 고구려무덤의 그것과 비슷한것으로 하여 후기신라무덤외부시설의 연원은 고구려무덤외부시설에 있다고 볼수 있다.

## 실마리어 무덤, 돌칸흙무덤